

주제: Ai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는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고 있다. Ai와 자동화란 Ai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하고 자동화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던 생산 활동에 기계력을 도입해가는 과정과 프로세서를 자동적인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총칭이다. 현재 이러한 Ai와 자동화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전보다 더욱 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머지않아 이로 인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보다 Ai와 자동화가 차지하는 일자리의 비율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로봇은 인권비도 들지 않고 사람보다 업무효율이나 정확성이 더욱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미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앤드류 양이 공식 홈페이지에 "자동화와 Ai 발전은 인간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수준의 번영을 가져 오겠지만 다른 한편 경제를 붕괴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첨단기술 보편화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Ai와 자동화는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더욱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만 점차 인간의 생계와 편의를 도리어 뺏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Ai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계를 위협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현재 전문가들도 Ai 기술의 발전이 급격화가 되면서 미래에는 대부분의 직업이 Ai기술로 대체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우리는 무인 편의점, 키오스크 같은 사람 보다는 기계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을 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고 미래에는 거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나 교통시설들이 더욱 늘어나고 공장이나 많은 회사에서도 이러한 무인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향후 10~20년 후엔 Ai로 인해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하였고 최대 8억개의 일자리가 사라 질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Lg경제 연구원의 조사를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은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인터넷 판매원 등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주요 업무를 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고 연봉 직종으로 불리는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도 Ai에 의한 자동화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하였고 숙련된 기술력이 필요해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던 제조 산업분야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계 조작 종사자의 59%에 해당하는 산업용 기계 조작 및 제어,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기술종사자들의 경우 Ai로 제어되는 산업장인 '스마트팩토리'가 본격 도입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군 직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조사 내용이 있다. 또한 Ai.로봇 톱스.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두되는 '스마트머신'이 인간 직업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있다 WEF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머신이 약 8500만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국적 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스마트 자동화는 2030년까지 세계 GDP에 최대 15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부(富)가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많이 창출하겠지만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도 있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밝혔다. 이렇게 계속하여 Ai와 자동화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인간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생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일을 하여 그에 따라 얻는 소득으로 우리의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데 Ai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소수를 제외한 인간들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간을 위한 확실하고 평등한 제도나 복지 방안이 빨리 확립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중에는 로봇세가 있다. 로봇세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키오스크 등장으로 다시 취업전선에 내몰려야 하는 젊은 층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아직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기도 어려운 로봇세 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들의 고통도 커져간다고 하였다. 물론 로봇세는 현재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상호 보안을 하여 더욱 좋은 정책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듯 현재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제도나 복지방안들이 계속하여 생겨나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반론의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직업이 Ai와 자동화로 사라지더라도 Ai와 자동화에 영향으로 또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겨 실업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반론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또한 맞는 말이다. Ai와 자동화의 영향으로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 직업의 수가 Ai와 자동화로 인하여 사라질 직업의 수보다 적을 확률이 크고 새로운 직업 또한 지금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직업 중 대부분은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서비스 업이나 포장 등의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는 업종이지만 Ai와 자동화로 인하여 새로 생길 직업은 로봇 제작자, 원자재 관리자, 빅데이터 및 Ai과학자, 가상공간 디자이너 등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일 확률이 높아 새로운 직업이 생기더라도 실업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로봇세 제도를 도입을 하여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을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고 실업자들은 더욱 일을 하려고 않고 나태한 인간이 되어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로봇세를 제도의 예시로 든 이유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제도 방안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온 것이고 확실히 아직까지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잘 보안을 하고 새로운 제도나 복지 방안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서 서로 상호보안을 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만족을 할 만한 제도로 만들어 시행한다면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 Ai와 자동화로 인하여 우리의 직업에 미칠 영향과 대처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Ai와 자동화 발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편안으로 인하여 점점 인간의 설자리를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꿈꾸는 직업이 언제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직장인들도 아무리 자신이 회사내에서 성과가 좋다고 해도 해고에 위협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수 있는 상

황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춤거릴 때 예도 Ai와 자동화의 발전속도와 보편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계속하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복지방안들이 만들어져야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의 생계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18>)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